

한국원자력학회 제33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정 동 옥
소속	중앙대학교
직위	교 수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원자력공학	박사	1992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12.4 ~ 현재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	
2010.1 ~ 2012. 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단장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8.9~현재	원자로시스템연구부회장	
2015.9~2018.8	학술이사, 편집이사	
2011.9~2017.8	NET 편집위원	
2010.9~ 현재	학회 평의원	

(예 : 임원, 평의원, 연구부회장, 편집위원, 좌장 등의 활동)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5.1~2017.9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2012.11~2016.4	한국원자력안전재단/비상임 이사	

(예 : 위원회, 이사회, 자문활동, 포럼 등의 활동)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많은 격언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다윈의 진화론을 들지 않더라도,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지 않는 생명체는 퇴보가 아니라 멸종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때로는 환경을 개척하는데 있기도 합니다.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오지를 개척하고 심지어 저 막막한 우주로 새로운 경지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환경을 개척하던, 환경에 적응하던 이 모든 것은 어쨌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왕에 변하려면 변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같은 고통도 덜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변화를, 어떻게 할지는 학회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학회장 1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 저, 하면 그냥 지나가지요. 학회는 컨센서스를 모으기도 쉽지 않더군요. 학회가 조직관점에서는 봉사단체와 유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종교 활동도 신앙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데 학회도 같다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 포스트 탈원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에 학회가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회원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서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다소 공감하지 않으신다해도 그 의견 역시 학회에 메아리치고 훌륭한 차기 회장단이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동욱 배상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성명 : 정 동 욱 **정 동 욱** (서명)